

제967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9월 15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 일본 열도 횡단한 러브소나타,

# 본토 중심부 '군마' 상륙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

천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열도(列島)를 횡단한 러브소나타가 본토의 중심부 군마에 상륙한다. 일본에서 19번째로 올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행사가 다음 주일(22일) 열린다.

군마 러브소나타는 오는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군마 현민회관)에서 교회부흥세미나(13일), 가스펠나이트(13일), CEO포럼(14일), 러브소나타(14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가 주강사로,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신상우(피아니스트), 송솔나무(플룻연주자), 심수봉(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니지마학교성가대, 박진아 작가(샌드아트메이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군마 현지는 지금 러브소나타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브소나타 본부에 따르면 벌써 12차 실행위원회를 준비 중이고, 9월 23일에는 QT세미나(장재훈 목사), 10월 14일에는 쉼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2007년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횡단한 러브소나타가 이번에는 일본열도 중심부 군마에서 열린다.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군마는 분지지형으로 기온이 높고 습하다. 온천과 빼어난 자연경관 때문에 레저스포츠 시설이 발달했다. 일본 곤약의 90%를 생산하고, 양배추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 또한 군마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의 고향인데 그의 기념비가 신사(神社)에 모셔져 있을 정도로 영적회복이 필요한 곳이다.

문의: 02-749-1149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역대 러브소나타가 열린 지역

최남단  
오키나와큐슈지역  
후쿠오카, 나가사키, 가고시마시코쿠지역  
다카마쓰본토(본섬)지역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 나가노, 센다이, 니가타, 아오모리홋카이도 지역  
삿포로, 아사히카와

## 2013 온누리 부흥축제 '절대제자'

10월 9~11일 양재 온누리교회

2013 온누리 부흥축제 '절대제자'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이번 부흥축제 '절대제자'의 주강사는 이재훈 목사, 프렌시스 찬 목사, <레디컬>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이며,

JAMA 김춘근 장로도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부흥축제에서는 절대제자, 복음의 능력, 제자의 삶, 권리포기, 사도로 부르심, 고난 속의 승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고

저녁에는 나를 따르라,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제로 부흥집회가 열린다. 등록은 서빙고와 양재 로비에서 받고 있다. 교회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비는 10월 6일까지 3만 원, 당일 4만 원.

문의: 02-3215-3122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오늘(15일)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국내 10개 캠퍼스, 30개 비전교회에서 실시된다.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1~7부 예배에서 배포되는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도들이 작성한 정기후원금은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 서부 아프리카 지속적 사업 개척, 긴급구호사업 등에 사용된다. <관련기사11면>

문의: 02-2271-224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성찬 포도즙 담그기

일시: 9월 23~25일

장소: 서빙고, 양재 식당

대상: 공동체 소속 권사, 임직 권사

추석휴무안내

기간: 9월 17(월)~9월 20(목)

9월 21(일)부터 정상 근무.

휴무기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결혼예배 추천

일시: 9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

장소: 서빙고 홍보관

양재 운유홀

## '아유레디(Are you ready?)'

북한 선교 담은 다큐 9월26일 개봉

북한 크리스천과 지하교회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기독교 다큐멘터리 '아유레디(Are you ready?)'가 오는 9월 26일(목) 개봉된다. '아유레디(Are

you ready?)'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선교 실상에 관련된 다양한 간증 및 지하교회에서 순교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인터뷰가 담겨있다.

허원 감독(동작공동체)은 "아유레디를 통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북한을 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회복축제 6~9면, 추석 감사 · 추모예배 10면
- 다음 주(9월 22일) 신문은 추석연휴 관계로 쉽니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도망자 다윗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십니다.

### 삼상 23:1~14

믿음이 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큰 성공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는 성공과 축복을 주시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분명 의로운 선택이었는데 불의한 취급을 받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치는 축복과 성공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공과 축복으로만 믿음이 성장한다면 믿음이 강할 것 같지만, 쓰러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 도망자가 된 다윗

다윗은 지금까지 성공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목동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들짐승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난이 사용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 사울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도망 다니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준비를 하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간, 최선을 다했지만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이 믿음을 세웁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왕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개 왕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혁명이나 반역을 통해

왕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왕이 되면 자신의 노력 없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무책임한 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혁명으로 왕위를 오르게 된 경우는 폭력적인 왕이 되기 쉽습니다. 다윗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동시에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 위험에 믿음이 연약해진 다윗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요하고 무서운 사울의 추적 앞에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자신을 보호하려는 다윗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를 살펴보면 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자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섭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간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했을 것이고, 조연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이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왕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 다윗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을 지킬 칼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과 칼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믿음이 칼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왕의 신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싸웠던 적을 왜 찾아갔을까요? 사울의 적에게 숨으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거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고 또 나름대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았던 것은 엄청난 착오입니다. 다윗의 판단이 흐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를 밖으로 나가 자신의 안전을 찾으려는 다윗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합니다.

### 계속되는 도망자 생활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아닌가?” 다윗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숨으려고, 보호 받으려고 블레셋에 왔는데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야겠다’ 거기서 살아 나갈 방법은 미친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도망치려는 참담한 현실, 이것은 다윗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생긴 모습입니다.

다윗은 다시 유대로 돌아와 아들람의 동굴에 숨습니다. 동굴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모두 합류했습니다. 아마 사울이 그의 가족들까지도 진멸하려고 위협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숨은 동굴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울의 악한 정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여 명이었는데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기초가 되는 유력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람 공동체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동굴이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위협을 피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향한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블레셋보다는 훨씬 우호적이지만 이방 땅입니다.

다윗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 루이 있었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루이 머물렀던 곳이 모압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일종의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 고난 속에 울려 퍼진 노래 ‘시편’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경고를 하시고 다시 광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쫓겨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가도, 모압을 가도 사울의 위협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

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되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지은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400여 명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시가 시편5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가 다시 유대 광야에 돌아와서 지은 시도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시련,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시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은 안락한 궁전에서 지어진 노래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 위협에 사로잡혔었지만 한편으로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

다윗이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은 일하지 않고 뺏아먹기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블레셋은 추수 때가 되면 유대 접경에 있는 마을들을 침략해서 약탈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과 식량들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쫓고 있는데 마을이 침략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싸우러 갈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대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구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1~4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강렬한 헌신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에도 있었고 모압과 블레셋에도 가봤습니다. 미친 사람 행색까지 하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 마을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명,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 두려움과 연약함 기도로 극복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모든 국방력을 다윗을 제거하는데 쓰고 있는데, 쫓기고 있는 다윗은 국가로부터 그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 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13~14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리라는 굳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받은 위협과 고난의 심본의 일만 받아도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고난이아말로 기도학교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사울의 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둘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동굴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은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두려움과 시련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배웁니까.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아말로 기도학교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고난을 통해 메시아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높이시지 않습니다. 그냥 높이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열정과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고, 모압에 갈 때 상황을 보면 기도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을 때는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연약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하들을 설득해서 마을을 구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마을을 구원해야 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독 안에 든 쥐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7~8절).

사울의 어처구니없는 말을 보십시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면서 나타나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

## 어르신들의 물댄동산,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8주년!

“지난 여덟 해, 모든 섬김에 감사드리며 어르신과 가족,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님 사랑 전하는 동부요양센터 되겠습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개원 8주년을 맞아 지난 10일(화)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동부직원예배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대표기도-편무옥 장로 ▷기념영상 ▷입소어르신 합창 특순 ▷말씀-‘하인들은 알더라(요 2:7-11)’ ▷우수직원, 봉사자 표창-정호옥 목사 ▷감사인사-이성희 원장 ▷축도 ▷케이크 커팅식 ▷식사 및 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말씀을 전한 서경남牧사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란다”



면서 “그 경험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사자, 우수직원상을 수여한 정호옥牧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이곳의 모든 분들을 축복한

다”며 소감을 전했고, 이성희 원장은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준 온누리교회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동부요양센터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교회는 사회의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에디 변 목사, 패밀리라이프 라디오 출연



지난 8월 30일(금) 영어예배(OEM)를 담당하고 있는 에디 변 목사가 라디오 프로그램 ‘패밀리라이프 투데이(FamilyLife Today)’에 출연했다. 이 날 방송에는 에디 변

목사 외에 진행자 밥 레핀(Bob Lepine), 패밀리라이프 대표인 데니스레이니(Dennis Rainey) 그리고 ‘Hope for Orphans’를 이끌고 있는 폴 페닝턴(Paul Pennington)이 참석했다.

라디오를 통해 에디 변 목사는 고아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교회(기독

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디 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고아, 과부, 아비 없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자들이기에 우리 교회가 고아와 가정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9일자 신문에 자세한 내용 게재)

▷에디변 목사출연 라디오 바로 듣기(아래 링크 클릭!)

<http://www.eddiebyun.com/1/post/2013/08/radio-interview-family-life-today.html>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인터뷰 \_ CCF신임 회장 운영각 장로

###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금) 크리스천 CEO포럼(CCF) 이취임식이 열렸다. 강신의 장로에 이어 운영각 장로가 회장으로 섬긴다. 신임회장 운영각 장로의 각오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각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서 게으름을 떨치지 않고, CEO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CEO라는 맡겨진 직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 ▶계획은?

특히 하나님께서 복한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11월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11월에 군마 리브소나타 CEO포럼이 개최되고, 12월에는 ‘더 멋진 당신’ 전도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 진행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대청 바이블아카데미 개강예배

대청 바이블아카데미가 지난 9월 11일(수) 양재 기쁨홀에서 개강했다.

이날 서빙고, 양재에서 열리는 10개 바이블 과정을 등록한 1,05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개강예배는 ▷찬양 ▷영상+교역자 특순 ▷이상준 목사(대청연합)의 메시지 ▷중보기도 ▷과정별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르심(막 3:13-19)’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이상준 목사는 “영성은 반응속도다. 부르심에 바로 ‘Yes’로 반응하길 바란다”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쁨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으로 초청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양재 권사스쿨 ‘와이미션’ 첫 시작

양재 온누리 권사를 위한 와이미션이 지난 10일(화) 양재 드림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200여 명의 권사들은 ▷찬양 ▷환영 ▷강의 안내(조호영 목사) ▷이승제 선교사(CCC선교국장)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특강을 통하여 모여 하나님

의 약속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려나갔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되는 양재 권사 와이미션 프로그램은 선교에 대한 강의, 안식M센터 방문, 영성수련회,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 조은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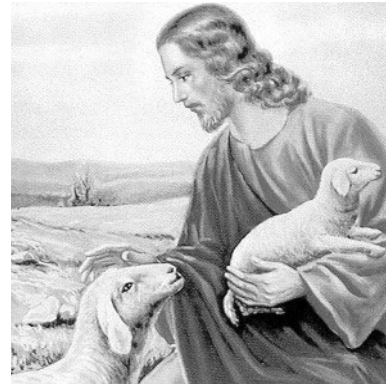
### 온누리 예배학교 서빙고 1기

온누리 예배학교 서빙고 1기가 정식으로 오픈한다. 서빙고 예배학교는 오늘(15일)부터 5주 동안 매주일 4-6시 김영진, 정장철 목사의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배학교는 세대와 문화를 뛰어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자는 취지 아래 진정한 예배자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예수님은 왜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유명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신 것일까? 말씀이 선포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문화가 다른 성도들이 도저히 알아채기 어려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다.

1주일의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의 <제사장의 뜰>에서는 순례객들이 모두 참여하는 두 가지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첫째, 물을 붓는 관제(libation) 의식이다. 실로암 연못에서 떠 온 물은 포도주와 함께 제단 위에서 부어졌는데, 이것은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야 할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우제’ 의 성격을 담고 있다.

둘째, 반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이다. 이 버드나무는 예루살렘 남서쪽 ‘모짜’라는 마을의 시냇가에서 꺾어 온 것을 사용했다. 물이 없으면 곧바로 말라비틀어지는 버드나무를 반제단 남서쪽에 세워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시편의 기도문을 묵상했 낭송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시118:25).

물이 없어 죽어 가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없으면 올해 수확이 풍성했어도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스라엘이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떠 온 생수를 제단 위에서 붓고 그 옆에서 말라비틀어져 가는 버드나무 가지 주위를 돌면서 이듬해의 풍년을 위해 풍성한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했던 것이다.

명절 끝날, 곧 초막절 7일째는 ‘큰 구원의 날’(호산나 라비)로 불리며 반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 놓고 매일 한 바퀴 돌며 하던 행사를 이날은 일곱 바퀴를 돌면서 진행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른 비의 축복을 구하는 기우제는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은 왕성한 시장바다처럼 시골벽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장인 제사장의 뜰을 찾아오셔서 그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신 것이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양 지

## “영적 추억의 공간으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 Acts29 비전빌리지, 박승철홀 준공예배

지난 9월 8일(주일) Acts29 비전빌리지 박승철홀 준공식이 열렸다. 오후 5시, Acts29 비전빌리지 지하 1층 박승철홀 앞에서 이재훈 담임목사와 박성호 형제(박승철 선교사의 아들), 이재환 원장(Acts29 비전빌리지), 도육환 목사(이천선교), 김창욱 전도사(온누리M미션) 등을 비롯한 장로 리더십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다. 준공예배는 ▷찬양 ▷박대호 장로(이천선교)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경과 보고(김종성 장로) ▷감사패 수여(도육환 목사) ▷축도(이재환 목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레위기 2장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 중 두 번째 제사인 소제(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변함없는 유향, 향기를 풍기는 섬김이 이곳 공간을 통해 드러나길 바란다. 이곳을 방문하고 떠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향한 섬김의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영적 추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교사를 위한 안식처로 지어진 Acts29 비전빌리지에 있는 모든 홀은 선교의 열정이 남달랐던 선교사들의 이름이 붙여져있다. 이중 박승철홀은 온누리교회 300호로 파송된 박승철 선교사의 이름을 붙인 공간으로, 2천1만 비전의 첫 순

교자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본래 박승철홀은 고(故)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 위치에 있었다가 이번에 이전 준공되었다.

박승철홀 내부는 넓은 무대와 32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의 좌석, 안쪽으로는 자모실, 방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성호 형제는 외진 곳에 이렇게 예쁜 홀을 만드시기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과 관련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생전에 아버지께서 어디를 가든지 대표기도를 하실 때 우리 가족을 음악선교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곤 했다. 이번에 지어진 장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당과 같은 곳이라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공간으로 사용될 박승철홀에 예배를 위한 키보드, 드럼, 기타 등의 악기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 측은 “많은 성도들의 바램처럼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공간을 아름답게 시공한 디지털 건축연구소 위드웍스 대표 권혁찬과 가람 디자인그룹 대표 석주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지난 8일 오후 5시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지하층에서 열린 박승철홀 준공식에서 참석한 온누리교회와 선교재단 리더십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남양주

## 산에서 부르짖는 ‘합심 기도’

### 개강 맞아 산상기도회로 하반기 힘찬 출발



다가올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눅 9:28, 22:39). 1960년대 가난과 질병, 영적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산상기도의 힘이였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주로 산속 기도원이나 산상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특유의 기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기도를 공동체 개강예배 때마다 진행한다. 상·하반기 열리는 산상기도회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고 있는 남양주 공동체 개강예배를 찾아갔다.

#### 새벽을 깨우는 기도소리

9월 6일(금) 선발대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차세

대 교역자들과 간사로 이뤄진 5명의 선발대는 오후 4시부터 음향장비와 예배 진행에 필요한 소품들을 챙겨 천마산 기도원으로 갔다. 자동차로 30여분 거리. 기도회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준비에 서둘렀다. 기도실 바닥에는 안락하고 편안한 의자가 아닌 두툼한 이불이 깔렸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일대일 대화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저녁 8시부터 기도실로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이형석 목사(구리공동체)의 사회로 9시부터 시작된 예배는 ▷찬양 ▷축복의 시간 ▷특순 ▷김정희 목사의 설교 ▷기도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순에서는 40여 명의 남양주 순장들이 모두 나와 ‘아주 먼 옛날’ 찬양을 부르며 울동을 선보였다. 이날 김정희 목사(남양주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

까?(창 4:1~8)’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개인이 하나님께 드린 자기의 제사가 아닌 아벨처럼 전심으로 제사(예배)를 드리는 하반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 매년 두 차례 진행되는 기도회

남양주는 지난 2010년 12월 백상욱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천마산 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가 진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상·하반기 개강예배와 종강예배에만 하게 됐다. 이형석 목사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복음 전파에도 장애가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한국교회의 산상기도회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다. 일제강점기하에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백두산산상기도회, 사각산산상기도회 등 구국을 위한 산상기도가 성행했다. 광복 후에는 유재현 목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대한기독교수도원’이라는 산중기도원을 세운 것이 한국교회 기도원의 효시라고 전해진다.

온누리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산상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남양주가 유일하다. 성도들은 조용한 산속 기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앞두고 맘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마음 치유하러 오세요’

#### 성장과 치유의 집단상담

양재 상담실에서 성장과 치유를 위한 집단상담을 진행한다. 화요집단상담은 오는 24일, 목요일집단상담은 28일에 시작된다. 집단은 10명으로 구성되며, 14주 동안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

문의: 570-7536~7 / 조은실 기자

#### ■ 일대일 Wake up

일시: 화요일저녁반-10월 1일~11월 12일  
오후 7시30분~  
주일오전반-10월 8일~12월 8일  
오전 8시20분~

장소: 서빙고 선교관 401호  
선교관 101호(주일오전)  
강사: 최상근 장로 강영재 장로  
대상자: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문의: 김창욱 집사 010-5078-3221,  
조영상집사(010-3906-2939)

#### ■ 51회 성령수련회

일시: 9월 28일(토)~29일(주일),  
토요일 오후 1시30분 서빙고 출발  
장소: 경기도 남양주 ‘다윗동산’  
강사: 이해영 목사  
비용: 4만원  
문의: 김항철 총무 010-6600-8442  
황보은선 권사 011-1720-5221



2013 회복축제 ‘왕의 임재’ ...

##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는 1천9백여 성도들이 지난 11~1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모였다. 온누리 성도들, 저 멀리 중국 온주에서 온 4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까지 함께한 2013 회복축제 ‘왕의 임재’는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첫 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내면, 생각 속에 심어진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모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오프닝강의를 시작했다.

열린 강의를 진행한 사라 그론-콜린은 “거룩함이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참 이름’

이다. 거룩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해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저녁시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여러분의 심장에 그분의 뜻을 심기를 원한다”고 강조한 도날드 트레드웨이 박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주기도 했다.

‘로봇다리 세진이’ 김세진 군의 간증으로 둘째 날이 시작되었다. 도날드 트레드웨이 박사는 주제 강의를 통해 우리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

오후에는 한마음 정신회복, 회복사역학교, 하트스쿨, 프리덤스쿨, 월요치유집회, 회복소그룹,

내적치유학교 등 온누리 7개의 회복사역을 소개하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또 사라 그론-콜린의 저녁 집회를 통해 성도들은 거짓된 자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복 축제 마지막 날에는 주강사인 사라 그론-콜린과 도날드 트레드웨이 박사가 ‘하나님 올바르게 인식하기’,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에 집중하도록 인도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는 다양한 선택식 특강과 찬양, 스킷드라마, 패럴토의, 퍼포먼스, 영화, 워십 등 다양한 특순이 진행되어 회복축제 삼일간의 여정을 더

욱 은혜롭게 만들었다.

집회에 참석한 이화성도는 “솔직히 다른 회복 집회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들이 확실해지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회복축제 후속 프로그램으로 서빙고 캠퍼스에서는 오늘부터(15일)~20일 ‘치유의 임재’가 부천에서는 ‘프리덤스쿨’이 이어진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인터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되어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 서연희, 이영애, 가지현, 선정화(부천 캠퍼스)



# 왕의 임재

첫째 날, 하나님의 임재

첫째날은 ‘하나님의 임재(Power of God)’가 주제인 만큼 F.V.워십팀의 공연, 나무엔·강전구 전도사의 <토기장이> 특순, 스킷 드라마, 힐링 토크, 김영미 권사의 특순이 있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오프닝 강의

###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고후 10:4~5)

왜 우리에게 회복축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실재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축제를 통해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닌 그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왕이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단의 강력한 요새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

## 열린 강의 1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사라 그론 콜린

이실체화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내재하십니다. 이것을 성육신의 실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이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왕좌에 앉아계시고 그 왕좌에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하셨다는 것. 그것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실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믿음



## 패널 토의 - 힐링토크



첫째 날 오후에는 ‘힐링토크’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패널토의는 조호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기원 목사(회복사역 담당)와 함께 이병국 집사, 손미숙 팀장, 이세은 집사, 김난이 자매가 참여해 회복사역 공동체를 통해 변화된 삶을 고백했다.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관계를 맺었고, 믿음보다 율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회복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덤스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 이병국 집사(서초B공동체)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이라 분노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딸이 변했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온누리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트스쿨을 통해 우리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 손미숙 팀장(OCC공동체)

“낮선 마음으로 회복사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그룹에서 딸의 문제에 대해 나눔을 하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세은 집사(고양은평공동체)

“사랑받고 싶어 스무살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2007년 회복축제 ‘아름다운 선택’ 내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 김난이 자매(북누리공동체)

## 저녁집회

###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소서”



도널드 트레이드웨이(YWAM 코나열방대학 주강사)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당신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행 22:14).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사도 바울에게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볼 것이고,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연결된 우리의 끈(Connection)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시오”(16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인 군대를 이끌길 원하십니다. 군대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뛰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고 죄 사람을 받으십시오.

## 선택식 특강 1

### 하나님의 용서 받아들이기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동의해야만 합니다.”

/ 사라 그론 콜린

## 선택식 특강 2

### 예수님의 사역 I

“예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입니다.” / 도널드 트레이드웨이

# 왕의 임재

둘째 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주제로 열린 온누리 회복축제 둘째 날에는 ‘로봇다리 세진이’의 간증, 회복사역 소개 및 선택식특강, 영화 〈Beautiful Child〉 등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간증 / 로봇다리 세진이

##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 가슴으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아이는 못 걷는다’고 좋은 휠체어를 하나 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비싸고 멋진 신발을 하나 사주시며, ‘세진아, 엄마가 반드시 네가 이 신발 신고 걸어 다니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때부터 매트를 깔아놓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혹여 못 일어날 때에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4살인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걸음마를 뒀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피노키오로 만드신 거라며, ‘피노키오’라고 놀렸습니다. 그때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눈앞에 불빛이 보여서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그것이 바로 첫 걸음마를 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활운동으로 가장 무리 없고 부상이 없던 종목이 수영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선택했지만 물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저를 물에 던졌고 살기 위해서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배웠던 수영이 지금은 꿈과 목표를 가져다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통영바다에서 5km를 완주하는 원영이라는 종목에 200여 명 되는 일반 수영선수 및 엘리트 수영선수와 함께 시합을 했는데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이 훈련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7일에는 뉴욕에 가서 10km 원영종목에 도전합니다.

2016년에는 장애인 올림픽이 아닌 일반 선수들이 참가하는 브라질 올림픽에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공평하게 맞서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세진 형제

주제강의 1

## 친구 되신 예수님

(마 28:18~20)



도널드 트레드웨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항상 초청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 과거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나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선택식특강 2-1

## 목회자와 인격장애



이관직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인격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 장애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소화되어 살과 뼈가 될 것입니다.”

선택식특강 2-2

##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



천정우 전도사 (YWAM강사)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평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을 공동체에 흘려보내며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식특강 2-3

## 우울로부터의 회복



남윤영 박사 (정신건강학전문)

“그리스도인이 우울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상황 뒤의 본질과 직면해야 하며, 둘째, 믿음의 성숙을 통한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넷째, 목표를 향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집회 2

##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정한 자아”

겔 36:27, 엡 3:16~17



사라 그론-콜린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마음, 죄악 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자기연민, 시기, 증오, 의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영혼에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타락한 옛 자아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타락한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었던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잘못 되어버린 자아를 구원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거짓된 자아를 죽여야만 그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픔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찾아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고, 매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 왕의 임재

셋째 날, 성령님의 임재



사라 그론-콜린

주제 강의

##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진정한 비전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분의 치유하심의 물결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미덕을 그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조적이고 사랑하고 관계하고 싶은 마음을 취해서 점점 작은 의미로 소멸시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을 왜곡시켜 포르노나 여성혐오증과 같은 죄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그것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되고, 능력주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됩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특별강의

### ‘회복탄력성’



김주환 교수 (연세대 교수, 회복탄력성 저자)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딛고 튀어 오르는 힘을 말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몸소 가르쳐주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회복탄력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선택식 강의

### ‘예수님의 사역2’



도널드 트레드웨이

“예수님께서 치유자 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치유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기 원합니다.”

〈시 낭독〉

### 주님의 숲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서로의 안과 밖, 거하고 둘러서  
하나가 되는 기쁨

마음과 마음이  
손과 손이 모아지고  
서로를 찾으며  
사슴같이 달려가는 발

깨어지고 흠어진 모든 것  
하나가 되기까지  
열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네

가시까지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달려가는 언덕길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랑은 다시 일어서네

오직 사랑 안에 든든히 뿌리내려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먼저 사랑을 구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숲을 위하여

/ 송현숙 자매(한마음 정신회복사역)



저녁집회

### ‘하나님의 순결, 성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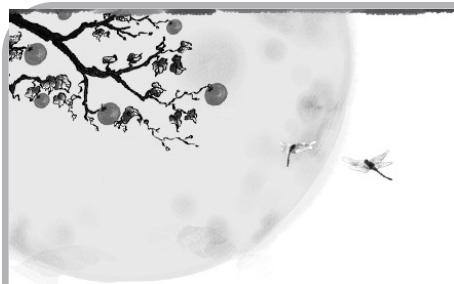


도널드 트레드웨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실존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 믿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에 확신이 있고 자유로운 이유는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께로 데려가는 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접 듣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온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성령님이 운행하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세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호가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 추 · 석 · 감 · 사 · 예 · 배

### \* 가정 예배 지침

- 1) 제사는 죽은 영혼에게 드리는 것이요, 추모 예배는 고인을 추모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상 위에 세워 놓고 그 앞에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 3) 미리 찬송가를 틀어 놓음으로써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 4)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풍성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삼대 절기 중 가장 큰 명절이어서 ‘여호와와 절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시편의 할렐송(시편 113-118편)을 주로 낭독하였는데, 특히 시편 118편을 읊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초막절 이스라엘에 널리 울려 퍼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28절)

시인은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로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서 그러냐고 물으면 여러 답들 중에 ‘그냥’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위대하고 아들과 딸이 왜 소중합니까?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28절)

시인은 나아가 주를 높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어떤 현실을 원망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설령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것이며 결국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질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주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을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나가는 말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막’이라고 하며 장막, 거처라는 뜻과 함께 ‘거주하다’는 어원을 갖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1:14) 초막절의 주인이심을 밝혀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추석 명절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없이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오직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                |                               |        |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다같이    |
| 찬송 .....       | 589장(넓은 들에 익은 곡식) .....       | 다같이    |
|                | 경배와 찬양 128장(먼저 그 나라와)         |        |
| 기도 .....       |                               | 가족 중에서 |
| 성경봉독 .....     | 시편 118:26~29 .....            | 다같이    |
| 설교 .....       |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             | 설교자    |
|                |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 기도제목 나누기 ..... |                               | 다같이    |
| 중보기도 .....     |                               | 다같이    |
| 찬송 .....       | 경배와 찬양 67장(날 구원하신 주 감사) ..... | 다같이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 들어가는 말

추석은 한해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입니다. 또한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시기로서 깊은 의미를 갖는 민족명절입니다.

기독교적으로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갖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며, 그 성서적 기원은 초막

## 추 · 모 · 예 · 배

개식사..... 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                |                                        |        |
|----------------|----------------------------------------|--------|
| 묵상기도.....      | 이사야 65:17-19, 25 .....                 | 다같이    |
| 찬송.....        | 559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                | 다같이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 다같이    |
| 기도 .....       |                                        | 가족 중에서 |
| 성경봉독 .....     | 요한계시록 21:1~5 .....                     | 가족 중에서 |
| 설교 .....       |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인생 .....                 | 설교자    |
| 찬송 .....       | 412장(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 다같이    |
| 추모하는 이야기 ..... |                                        | 다같이    |
|                | 고인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인생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 노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고는 분명 사람의 일생이 유한함을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고가 결코 사람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공허하다는 허무주의를 표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래서 짧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고인은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자리는 아직 여정의 도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1절)

사도 요한은 하늘과 땅의 전쟁이 끝나고 도래하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장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아직 고난의 여정 중에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3절)

사도 요한은 또한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치고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을 큰 음성으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게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라.” (5절)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이 광경과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광경들과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실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아직 여정 중에 있는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할 예언일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는 이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이의 상처를 치유하며, 영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다시 살아나도록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인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여정 중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그것을 체험하듯 보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도 고인과 함께 그 완전한 연합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왜 NGO '더 멋진 세상' 인가?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온누리교회에는 선교를 담당하는 5개의 기관(2000선교, TIM, 온누리 미션, Acts29비전빌리지, NGO 더 멋진 세상)이 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인종, 종교, 지역, 이념을 초월해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10년 12월 29일 설립되었다. 온누리교회에 많은 선교기관이 있는데 NGO '더 멋진 세상' 을 설립한 이유가 궁금하다.



## 효율적 선교전략

전방개척 선교지역은 교회이름으로 선교할 수 없다. 이슬람 국가 같은 전방개척 지역은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전파와 교회 개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故 하용조 목사는 교회의 이름을 걸고 선교할 수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NGO 기관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중립적 색채를 띤 선교라기보다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 영적 전쟁터 선봉에 서다

NGO는 영적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다.

이슬람은 중동의 오일 달러를 등에 업고 금전공세를 퍼부으며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슬람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이슬람의 분포도를 보면 중동과 지중해에 닿아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 분포가 적은 편이지만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벌써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수단, 차드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었다. 아프리카 이슬람이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 '더 멋진 세상' 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직접 뛰어들어 사역한다.

##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NGO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분야와 활동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협력해 지역개발을 통한 선교를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에 개발요원을 파송하는데 용이하다. 재

원 조달도 선교단체보다 유리하다. NGO는 자체자금 50~80%를 정부기관(외교부 산하 KOICA, 보건복지부의 KOFH, 교육부의 국제교육진흥원 등)과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의 자선재단 등)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다양한 NGO 사업을 통해 전방개척 선교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쩌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보다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밥 한 끼, 질병을 치료하는 약 한 알이 더 시급할지도 모른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더 멋진 세상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능과 시간을 나눌 인재를 모집

## 모집분야

홍보 / 홈페이지 관리 / 현장 취재 및 영상 제작, 기사 작성, 뉴스레터, 소식지 등 제작

## 후원자 관리 및 행정

우편물 발송, 데이터 정리 / 프로그램 및 후원행사 지원

## 국제협력

번역 및 통역(영어, 불어 등)

## 자격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소명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전문 기능을 소지한 사람

## 활동

사무실 방문(주1~2회, 본인 희망시 확대) / 온라인상 홍보(메일, 홈페이지) / 해외사업현장 답사 / 해외사업현장 아웃리치 / 정기 모임

## 신청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 참여게시판

## 혜택

NGO 더 멋진 세상 각종 행사 우선 초대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VMS 봉사활동 인증)  
NGO '더 멋진 세상' 자료제공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시 우선 선발

## Donation

한 달의 행복, 생명을 선물합니다.

### 개인후원

프로젝트별: 어린이생명살리기, 해외지역개발, 대북지원, 의료지원 등  
국가별: 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 파키스탄 등

### 맞춤식 후원

학교, 회사, 교회 등의 팀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업대상지나 학교에 학습품, 식수개선 프로젝트, 가족 등을 후원

### 기념일기부

생일, 돌, 결혼, 입학, 졸업 등 나와 가족, 친구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NGO '더 멋진 세상' 에 기부

### 재능기부

사무, 행정, 홍보, 리서치, 국제개발협력 등의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

### 후원방법

Facebook: www.facebook.com/4abetterworldto-

### gather

인터넷 후원: NGO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 참여게시판

### 후원을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과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기부를 하실 경우, 후원자님의 사진과 메시지를 담은 감사패 또는 기념증서를 드립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기획연재

1.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2.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4.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CGNTV를 후원하는 든든한 삼각편대가 있다.

주인공은 MVP(Missionary Vision Partners) 후원자, 운영위원회, CGNTV 중보기도모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CGNTV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최연소 후원자 최지을 가족

“목을 축이는 생수에도 돈을 지불하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CGNTV를 후원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의 작은 후원이 누군기에겐 생명이 된다는 건 참 기쁩습니다.”

CGNTV에는 1만8000여명에 달하는 정기후

원자가 있다. 그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후원자가 있다. 태어난 지 15개월 된 최지을의 가족. CGNTV의 최연소 후원자인 지을이와 CGNTV의 인연은 엄마 강소영 씨의 작은 소망에서 시작됐다.

“CGNTV는 지을이를 위한 양육교재입니다. 우리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죠. 이 때문에 저는 CGNTV를 늘 틀어놓아요. 찬양과 말씀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의상실 겸 커피숍 ‘Htoah(겸손)’을 운영하

### MVP(Missionary Vision Partners) 후원자

## “CGNTV를 후원하는 건 당연하죠”

는 강 씨는 CGNTV의 열렬한 시청자다. 한 때 ‘CGNTV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였다. 5년여 전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리며 큰 감동을 받은 그는 CGNTV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박나립의 하늘 빛 향기〉〈독수리5형제〉 등의 프로그램에 목걸이 등 액세서리와 의상 등을 협찬했다. 〈정주호의 몸뚱이〉〈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등을 통해 선 운동, 요리를 배우고 결혼 새나기도 준비할 수 있었다.

남동생으로부터 체코가 영적 암흑기에 놓여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운영하던 숭에서 첫 손님에게 판매한 금액, 37만원을 체코를 위한 CGNTV 위성안테나를 달도록 후원했다. 일본

교회를 위한 위성안테나 후원도 해왔다. 강 씨의 CGNTV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남편 최영진 씨에게도 전염(?)됐다. 다니는 회사에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금 2500달러 전액을 CGNTV에 후원한 것.

“예전에는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면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기로 했어요. cafe Htoah에도 종일 찬양 음악을 틀기로 했어요.”

“숨에 왔던 믿음 없는 누군가가 CGNTV를 통해 성령의 타치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강 씨의 고백을 듣다보니 불현 듯 1만8000여 CGNTV 후원자 마음이 모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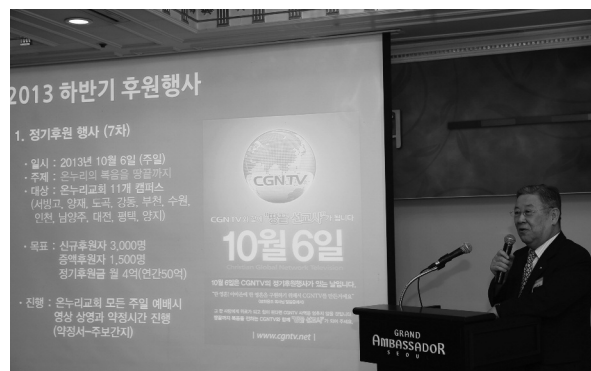
### CGNTV 운영위원회

##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전 세계 교회와 아낌없이 나눈다

“어떤 경우여라도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CGNTV 운영위원회는 CGNTV와 선교지의 가교라는 소명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CGNTV의 모판이라면 운영위원회는 젓줄이다. 온누리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면 운영위원회는 아버지와 같다. CGNTV 운영위는 고(故) 하용조 목사의 ‘한 영혼을 위해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아깝지 않다’는 유지를 받들어나가는 데 분초를 아끼고 있다. 지난 4월 정상건 장로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운영위원 배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위원이 50명에서 87명으로 늘어났다. 이재훈 담임목사 등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다양한 직군에 속한 위원들은 CGNTV 설립 초기부터 하 목사를 통해 함께 한 위원들과 ‘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

분기별 모임 외에도 각 조별로 나누어 CGNTV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성도 간 ‘코이노니아’도 일과가고 있다. 다음달 6일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주일에 CGNTV 정기후원행사를, 11월 26일 CGNTV 후원을 위한 심수봉 콘서트를 개최하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11



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군마리브소나타 참석, 무목(無牧)교회 방문과 위성안테나 설치 등 운영위원 아웃리치를 통해 미디어선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정 위원장은 “현재 운영위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교회나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CGNTV 비전에 공감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뜻을 가진 분들이라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한국 교회(선교사) 및 세계 교회와 아낌없이 나눈다는 점에서 우리교회 어린이들을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이 CGNTV 후원자가 되면 좋겠다”면서 “10월 6일 정기후원행사가 그 바람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CGNTV 중보기도 모임

## “부르짖으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10월 6일 CGNTV 정기후원행사 위해 기도 중



류석인 권사는 2008년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 모양의 환상을 세 번 봤다. 환상을 본 후 여성예배에 갔는데 CGNTV 중보기도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류 권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일 년에 두 번씩 CGNTV 중보기도팀 이름으로 CGNTV 안테나도 설치하고 있다.

고영희 권사는 올해 1월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고 CGNTV를 위한 월요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하는 기도모임에서는 CGNTV 직원 한사

람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

요즘 월요 기도모임과 금요 기도모임 모두 10월 6일 진행될 CGNTV 정기후원행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통해 땅 끝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 《월요기도모임》

일시: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CGNTV 본사 1층 접견실

### 《금요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빙고신관 미션홀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러 브 소 나 타

群馬



# Sonata 군마

**2013.11.14(목) 오후 7:00**  
**베이시아문화홀 (군마현민회관)**

※ 11월 13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군마



## Gunma

**Main Speaker**

**이 재 훈 목 사**

온 누리 교 회 담 임 목 사



배재철  
(테너)



김영미  
(소프라노)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심수봉  
(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온누리교회)



니지마학교성가대  
(찬양·핸드벨)



박진아작가  
(샌드애니메이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http://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 Onnuri | 협 찬 | CGNTV Duranno